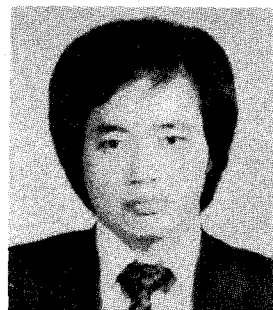


생산자 일치단결하여 지구책 강구해야



박 석 하
(대전 축산협력회 회장)

K형! 어제 육계 출하했다면서, 얼마나 남았어?”
“남긴, 이것저것 제하고 몇 십만원 깨졌나봐”

우리 협력회 사무실이나 육계업자들이 모이는 장소에선 심심찮게 들어왔던 이야기들이다. 우리의 경험으로 지난 10년을 돌이켜 볼때 그동안 너무 무계획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육계업에 뛰어들어 이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여 수많은 회비와 우여곡절을 넘기면서 양계업에 종사해 왔다. 특히 83년 후반부터는 몇 개월동안 가격의 생산원가 이하의 하락, 무허가계사 철거령, 사료가격 인상요인 등 불황의 늪에서 허덕여왔고, 도산내지 파산 등 생산의욕의 완전상실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영세양계인들은 이런 어려움을 헤치고 지난날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생업의 안정 및 소득향상을 기대할수 있도록 능동적이고도 합리적인 가격안정 대책 강구에 간절한 소망과 호소를 하고자 한다.

첫째, 육계업자의 가격안정

노력은 물론 관계 당국에서도 육계분야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① 계획적인 사육 :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 수량을 조절하여 계획성 있는 사육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 양계산업은 육계가격 상승으로 인한 과잉입추 선호현상과, 그로 인한 부화장의 과잉생산으로 초생추의 덤핑판매 내지는 외상판매(출하 후 결제)가 속출하고있고, 무결제한 사육(과잉생산)을 함으로써 관리소홀로 인한 계사의 오염, 사료효율 저하, 질병의 발생을 초래하여 본인은 물론 이웃 농가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다.

시세가 좋으니까 대량 입추하여 한탕 하자는 것은우리 육계업을 불황으로 몰고가는 주범이라고 생각된다. 출하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눈치작전을 피우다가 하락세가 보이면 너나 할것없이 출하하는 현상은 하루 빨리 시정이 되기를 바란다. 이로 인하여 시장시세가 흐려지고 서로 앞을 다투어 덤핑

판매가 시작되고 보니, 결국 우리 업자들만이 막대한 손해를 보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일년간의 사업계획을 짜고 입추 당시 무엇으로 입추할 것인가 계획을 짜서 하이, 세미, 삼계로 구분하여 입추시 계획한 물건으로 출하를 한다면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가격변동을 조금이나마 막을수 있고, 또 앞으로 육계업의 불황을 타개하는 첫걸음이 될수 있다고 생각된다.

누구한테 미룰게 아니라 나 자신부터 입추를 조금씩이나마 줄여 알뜰하게 경영해 나갈때 품질의 향상 및 원가절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83년 하반기와 같은 불황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나하나만 이란 안일한생각을 버리고 우리 모두 협력해 나아갈때 가격의 안정은 이루어질 것이다.

② 육종농장의 적정 종계생산 : 육종농장에서는 육계업자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는 사명감을 갖고 적정한 숫자의 종계를 생산해야 한다. 종계의 과

다 생산은 파잉 생산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육계농가의 자제도 중요하지만 육종농장의 생산조절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③ 관계당국의 지원책 미약 : 소, 돼지와 같이 육계사육 숫자는 물론 종계사육 숫자를 파악하여 가격의 예시제를 주기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육계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육류소비의 상당량을 육계업이 차지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도외시되어온게 사실이다. 소·돼지는 조금만 숫자와 가격의 변동이 있어도 매스컴에 보도되지만 육계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생적으로 도계 처리된 육계가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소·돼지와 같이 연동제 실시를 하여 도·소매상의 폭리를

를 막음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할수 있다.

④ 사료가격의 안정 : 정부차원에서 사료원료 및 사료안정기능 확보로 소비자 가격의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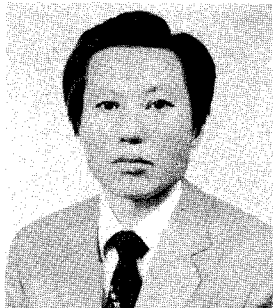
둘째,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료회사, 부화장, 유통업자(상인), 육계업자는 상호신뢰 속에서 육계업을 발전시켜야 가격안정을 기할수 있다.

① 사료회사에서는 투기성을 면 철새업자 및 영세업자들에게 회사간의 판매경쟁으로 인한 무리한 덤핑 및 외상판매로 육계 파잉생산을 초래하고 있는데, 사료회사의 자제를 바란다.

② 부화업자는 초생추의 파잉생산으로 초생추의 덤핑판매 및 출하후 수급제도 등 판매정책의 개선을 바란다.

③ 유통업자(도·소매상인)는 생산자와 상호 공존해야 한다는 불가결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립된 군소 도·소매상인의 저질적인 불신가격조작이 가격폭락을 유발하므로 유통체계 개선 및 규제강화로 폭리를 막고 정당한 가격을 받을수 있는 상호신뢰 풍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육계업자는 주위의 상황에 동요됨이 없이 계획적인 입추, 생산, 출하를 함으로써 가격의 변동폭을 최대한 줄일수 있다. 끝으로 육계업자 및 육계단체(계우회)는 대한양계협회 도지부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요 공급에 알맞는 적절한 입추와 출하로 정당한 가격을 받을수 있도록 상호 일치 단결하여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수급 조절장치 또는 전담부서 설치돼야

권 경 익
(육계납세조합 조합장)

주지하다시피 양계(육계)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수급상의 불균형, 특히나 육계에 있어서는 공급량의

진폭에 따라 가격의 진폭이 대단히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가격의 불안정이 우리나라 양계(육계)산업의 발전에 커다란 장

애요인이 된다는 것은 재언의 여지가 없다.

우선 그 자체로서 전근대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생산량을